

가톨릭 교회의 청소년 사목과 교회의 권위*

최 준 규

가톨릭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가톨릭 교회의 청소년 사목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두 가지 하위 연구목적을 두었다. 첫째는 가톨릭 청소년 사목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청소년 사목에 관한 보다 포괄적·통합적 정의를 규정하고, 청소년 사목의 위기의 원인들과 해결 전략들을 유형화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교회의 권위의 개념을 종교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는 가운데 진정한 교회의 권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특별히 교회의 청소년 사목의 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교회 권위의 역할에 대해 제안을 하는 것이었다.

이런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청소년 사목을 교회의 부차적인 영역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4대 기능인 복음선교, 전례, 친교, 봉사 안에 청소년의 관점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현 청소년 사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프로그램들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일뿐 아니라 전체 조직의 차원에서 포괄적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혔다. 또한 진정한 교회의 권력은 ‘봉사하는’ 권위로서, 특별히 교회의 권위가 청소년 사목의 비전을 명확히 설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며, 긍정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활용할 때 더욱 성장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핵심 주제어: 가톨릭 청소년 교육, 청소년 사목, 교회의 권위, 권력의 패러다임

서 론

근래 가톨릭 교회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사목에 관한 세미나와 회의에 가보면, 발제와

* 본 연구는 2009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토론은 언제나 교회의 청소년 사목이 심각한 처지에 있다는 ‘위기론’으로 가득하다. 실제로 가톨릭 교회 내에 청소년의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고등부의 경우 23%의 감소를 보였고, 초등부는 15%의 감소를 보였다. 그리고 본당의 청소년 중 대략 10% 정도만 주일학교에 참여하고 있다.¹⁾ 세미나의 참가자들은 대체로 이런 통계 자료로써 자신의 발표를 시작하고, 이를 기초로 청소년 사목의 위기의 원인들에 대한 분석을 내어 놓고, 이어서 가능한 해결 방안들을 제시한다. 어떤 것들은 참신하지만 솔직히 대부분은 진부하며, 세미나의 분위기도 그리 밝지 못하다. 이는 논의되고 있는 청소년 사목의 문제는 중대하고 시급한데 제시되는 해결방안들은 자못 태평스럽고 구태의연하기 때문인 것 같다.

본 논문은 가톨릭 교회의 청소년 사목과 교회의 권위의 관계를 고찰한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가톨릭 교회의 청소년 사목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청소년 사목의 좀 더 포괄적인 정의를 제안한 후, 기존 연구 안에서 제시하였던 청소년 사목 위기의 원인들과 해결 방안들을 유형화할 것이다. 본 논문의 두 번째 목적은 교회의 권위와 청소년 사목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사목의 옛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새 패러다임에 관해 논한 후에, 교회의 권위, 권력 그리고 권위주의에 대한 개념 규정을 시도할 것이며, 그 다음 청소년 사목을 위한 교회의 권위가 무엇인지 제시할 것이다. 모쪼록 본 논문의 청소년 사목에 관한 개념화 시도가 미래 청소년 사목 분야의 이론화 작업과 체계적인 실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 청소년 사목의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논의

1. 청소년 사목의 정의

청소년 사목의 연구와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사목의 정의를 재고(再考)해야 한다. 수많은 선행 연구에서 청소년 사목의 정의에 대해 합의된 정의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저자에 따라 청소년 사목을 본당 주일학교로 국한시키기도 하고,²⁾ 교리교육 같은 지적교육을 의미한다.³⁾ 또한 어떤 이들은 청소년을 위한 교

1) 김웅태, 『청소년 사목 이대로 좋은가』(청소년 사목의 오늘과 내일 - 청소년 사목의 실태 진단과 대안 모색, 2005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학술 심포지엄), 『사목연구』15(서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005 겨울), 14-15쪽; 조한수, 『본당에서의 청소년 사목』(청소년 사목의 오늘과 내일 - 청소년 사목의 실태 진단과 대안 모색, 2005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학술 심포지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사목연구』15(서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005 겨울), 34-36쪽.

회와 사목자의 배려를 강조하지만,⁴⁾ 다른 이들은 청소년의 사목은 ‘복음화(福音化)’에 다를 바가 없는 개념이라고 한다.⁵⁾

이처럼 청소년 사목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는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저자마다 글의 목적에 따라 청소년 사목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저자들이 청소년 사목의 현황 분석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에너지를 쏟은 반면, 개념들의 정확한 의미나 개념들의 관계 정립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떤 개념을 정리하는 데 정형화된 ‘유일한’ 혹은 ‘완벽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념 정의를 위한 일종의 원칙은 존재한다. 즉, 개념을 정의하는 좋은 방법은 지금껏 소개된 정의들을 면밀히 고찰하여 그 안에 담긴 중요한 관점들을 유형화하고, 중요한 용어들을 포함시켜 포괄적인 정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청소년 사목에 적용해 보자. 기존 연구에서 발견되는 청소년 사목에 대한 정의들을 네 개의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중심적,’ ‘사목 중심적,’ ‘복음화 중심적,’ 그리고 ‘과정 중심적’ 관점이 그것이다. 관점(perspectives)은 일종의 사고의 틀(frame of thoughts)로서 마치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듯, 어떤 이가 외적 세계를 정의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규정하며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는 정신적 기초가 된다.⁶⁾ 이 관점들은 청소년 사목의 다른 측면을 보여 주지만 이들은 엄격한 경계선을 두고 상호배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보완하고 있다.

첫째 관점은 프로그램 중심적 관점(the program-oriented perspective)이다. 이 관점은 청소년 사목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많이 눈에 띄는 접근법이다. 이 관점에서 청소년 사목은 일차적으로 본당 주일학교, 교리교육, 여름 캠프, 피정, 체육대회, 봉사활동, 성탄제, 동아리 활동 같은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 관점은 청소년 사목을 교회가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신앙적 서비스라고 보고, 새롭고 다양하고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을 강조한다.

2) 조한수, 앞의 글, 34쪽 이하 참조.

3) 이금재, 『청소년기 신앙성숙을 위한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리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3쪽.

4) 라틴아메리카 주교단 협의회 사무국, 김수복·성염 역, 『메텔린 문헌』(왜관: 분도출판사, 1989), 13쪽; Warren, Michael, *Youth and the Future of the Church: Ministry with Youth and Young Adults*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82), pp. 67-68; 조재연, 『청소년 사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포레사목을 통한 청소년 사도 양성을 중심으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4쪽.

5) 김기현, 『청소년 사목의 방향에 대한 제언』(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42-43쪽; 김웅태, 앞의 글, 16쪽; 황종렬, 『한국 교회 청소년 복음화의 어제와 오늘: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와 교구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편, 『활기찬 청소년 사목을 위하여』(서울: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05), 190-191쪽.

6) Bolman & Deal, *Modern Approaches to Understanding and Managing Organizations*(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84), pp.145-146.

둘째 관점은 사목 중심적 관점(the pastoral-oriented perspective)이다. 이 관점은 청소년을 위한 교회의 총체적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사목(司牧) 중심적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 사목은 교회의 구원증재 행위이다. 사목적 관점은 본질상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를 떠올리게 한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알고 하나 하나 이름을 지어 부르며, 위협에 빠졌을 때에 자기 목숨을 바친다. 이 관점에서 사목자는 군림하는 폭군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고통과 기쁨, 절망과 희망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면서, 자녀들에게 헌신하며, 결국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존재이다.⁷⁾ 청소년 사목은 청소년의 필요를 파악하고 충족시키려는 행위이며, 청소년을 위한 교회의 활동이다.⁸⁾ 따라서 사목 중심적 관점은 청소년 사목을 위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체제 등을 강조한다.

셋째는 복음화 중심적 관점(the evangelization-oriented perspective)으로, 청소년 사목을 복음화(福音化)로 본다. 이 관점에 의하면, 기존 ‘사목(司牧, pastoral care)’이란 용어는 목자가 신자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라틴어 *cura animarum*)’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자칫 청소년 사목은 청소년을 ‘사목자-양’의 관계에서 수동적 대상으로 잘못 이해하게 만든다. 반면에, 청소년 사목을 ‘복음화’로 이해하는 것은 복음화를 추구할 의무와 책임을 지닌 청소년들의 주체성을 강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⁹⁾ 왜냐하면 복음화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이미 교회의 일원이 된 이들이 끊임없이 신앙적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이다.¹⁰⁾ 또한 이 관점은 청소년 사목을 복음 선포와 자기쇄신을 목적으로 보고, 성서에 대한 지식, 복음적 삶에 대한 이해, 교회와 세상을 위한 봉사와 정의실현에 중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과정 중심적 관점(the process-oriented perspective)은 청소년 사목이 자신의 목적, 내용, 활동을 통합시키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 관점은 청소년의 관심, 필요, 성장을 교회의 모든 측면에서 지속시킬 것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통합’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이는 우선 청소년을 교회의 기본 기능인 복음선교(*martyria*), 전례(*liturgia*), 친교(*koinonia*), 봉사(*diakonia*)에 온전히 통합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관점을 본당의 사목목표, 사목정책, 사목조직, 사목계획, 사목실행, 사목진단 등 모든 측면에서 수용할

7) 헨리 나웬, 최원준 역, 『상처입은 치유자』(서울: 두란노, 1999), 77쪽.

8) 바오로 6세,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1항, 5항; 임병헌, 『사목자의 상주의무에 대한 소견』 『사목연구』2(서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1995. 12), 56쪽; Warren, 앞의 책, 87쪽; 라틴아메리카 주교단 협의회, 앞의 책, 95쪽; 조재연, 앞의 논문, 7쪽.

9) 1976년에 발간된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의 청소년 사목에 관한 문헌인 『A Vision of Youth Ministry』는 “청소년 사목은 젊은이들의 욕구에 응답하고, 그들의 특별한 재능을 교회 공동체 전체와 나누는 행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USCCB), *Renewing the Vision: A Framework for Catholic Youth Ministry* (Washington, D.C.: Author, 1997), p. 6.

10) 제2차 바티칸공의회, 『선교교령』,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9항, 12항; 교황 바오로 6세, 『현대의 복음선교』(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7), 17-18항.

수 있게 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청소년 사목을 정의하기 위한 네 가지 관점은 청소년 사목에는 어떤 측면들이 존재하며, 이 측면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청소년 사목에 대한 보다 정확한 개념을 잡도록 해준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 사목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려 보았다.

청소년 사목이란 교회 공동체가 청소년의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의 복음선교, 전례, 친교, 봉사의 기능 안에 청소년의 관점을 통합하는 과정이다.

이 정의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담고 있다. 먼저, 청소년 사목은 교회의 여러 주변적 활동들의 집합이 아니라, 교회의 관심, 헌신, 계획, 실행, 평가, 그리고 강화로 이어지는 역동적 과정(process)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통합’(integration)이란 개념은 청소년의 관점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목 프로그램, 정책, 조직구조 안에 깊이 스며들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해준다. 또한 ‘복음화’(evangelization)라는 개념은 청소년들의 인간적·영성적 성숙이라는 청소년 사목의 목적을 밝혀줄 뿐 아니라, 청소년을 자기 자신과 세상을 위한 복음 선포의 주체로서 바라보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 정의 안에서 교회의 기본적 기능인 복음 선교(*martyria*), 전례(*liturgia*), 친교(*koinonia*), 그리고 봉사(*diakonia*) 이야말로 청소년 사목이 펼쳐지는 장(場)임을 각인시켜 준다.

2. 청소년 사목의 위기 분석

선행 연구들은 현재의 청소년 사목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위기가 교회 밖에서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도출되었다는 점 역시 공감하고 있다. 그들은 청소년 사목의 위기는 ‘총체적인’ 원인으로 기인한다고 본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 사목을 어렵게 만드는 ‘교회 밖’ 환경 중 첫째는 무신론적 문화, 물질주의와 소비주의 문화, 개인주의와 해방주의, 반생명적 문화, 포스트모더니즘, 정보통신의 혁명으로부터 변화된 철학적·신학적 환경이다.¹¹⁾ 서울대교구 교육국의 조한수 관장(2005)은 영국의 기독교 교육학자 헐(John Hull)의 설명을 빌어, 합리주의, 개인주의, 미래지향주의, 해방주의를 부르짖는 ‘근대성’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위계질서와 가르침은 청소년들에게 관료주의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한편, 과거 지향적으로

11) 조군호, 『청소년 사목 토착화 연구를 위한 현실인식』(청소년사목토착화연구회 제1회 정기포럼, 젊은이여 일어나라: 청소년 사목의 현실과 전망)『한국그리스도사상』10(서울: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02), 110-111쪽; 조한수, 앞의 글, 33쪽; 차동엽, 『21세기 종교환경과 복음적 대안』『성서사도직회보』 제17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14-75쪽.

학생들의 발목을 잡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자유를 속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¹²⁾

청소년 사목을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교회 외부 환경은 교육정책과 제도이다. 여기엔 대학입학과 획일적인 교육, 공교육붕괴, 사교육의 극성, 교원들의 사기 저하, 소외 학생의 증가를 포함된다. 어느 대학에 입학하느냐를 나머지 인생의 사활과 연결시키는 부모들의 의식과 사회구조는 청소년들이 정서적인 여유를 갖거나 교회가 제공하는 영성생활에 깊이 침잠하기 어렵게 만든다.¹³⁾

한편, 청소년 사목의 ‘교회 안’ 환경 역시 심각하다. 청소년 사목을 위협하는 내부적 요인들은 매우 많다.¹⁴⁾ 수 년 동안 서울대교구의 청소년 사목의 책임자였던 조재연 신부(2005)는 사목자의 인내심 부족, 투신하는 사목자 부족, 교사들의 양과 질의 부족, 형식적이고 즉흥적인 행사, 담당 사제와 수도자의 짧은 임기, 청소년 사목에 대한 교회 비전 부족, 교회의 권위적 이미지, 관심과 재정 부족, 공감하지 못하는 목표 제시, 부모들의 양면성, 일관성 없는 사목, 사목에서 청소년의 의견 배제 등을 청소년 사목을 위협하는 교회의 내부의 문제들로서 제시했다.¹⁵⁾ 한정수 신부(2005)는 재정적 지원 부족, 교리교사 양성 부재, 청소년 공간 부재, 사목자와 학부모의 지원 부족, 교리교육의 철학적 체계와 목표의 부족 등으로 요약하였다.¹⁶⁾

그러나 위에 나열된 지적들은 청소년 사목 위기의 원인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망라한 점에서 나름으로 공헌이 있으나, 반면에 분석적이지 못하고 인과관계(因果關係)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준다. 비록 어떤 저자들은 청소년 사목의 위기 원인을 행정적, 사목적, 재정적, 환경적인 범주로 분류하기도 했으나, 이것들 역시 추정에 가깝고, 분류의 근거가 분명치 않다. 청소년 사목의 걸림돌이 된 교회 안팎의 원인들을 조직 이론 등을 빌려 분석적으로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이것을 정리하여 <표 1>로 만들었다.

12) 조한수, 앞의 글, 33쪽.

13) 윤일선, 「청소년 사목 토착화 연구를 위한 현실인식」(청소년사목토착화연구회 제1회 정기포럼, 젊은이여 일어나라: 청소년 사목의 현실과 전망)『한국그리스도사상』10(서울: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02), 141-149쪽; 천주교서울대교구,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서울: 천주교서울대교구, 2003), 4항.

14) 강영복, 「현대 사회의 청년사목의 방향에 대한 조사연구」(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45-47쪽; 김기현, 앞의 논문. ; 오상철, 「가톨릭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갈등에 대한 연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45-48쪽; 박문수, 「청소년들의 신앙의식에 비추어 본 한국 천주교회의 미래」(서울: 우리신학연구소, 2001), 8-9쪽; 이미영, 「각 교구 청소년 관련 조사에 나타난 청소년 사목의 모습」, 우리신학연구소 편, 『청소년사목워크숍 자료집』(서울: 우리신학연구소, 2004), 55쪽; 조재연, 「청소년 사목에 대한 교회의 시선」『사목』(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8), 84-93쪽; 조재연, 「청소년 사목자 양성에 관한 고찰」『사목』(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7), 105-117쪽; 조재연, 「청소년은 교회에서 무엇을 바라는가?」『사목』(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5), 91-103쪽; 황종렬, 앞의 글, 190-112쪽.

15) 조재연, 「청소년 사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3쪽.

16) 한정수, 「새로운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사목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9-21쪽.

여기서는 문제의 환경을 수준별로 나누었고, 문제의 원인을 유형화하였다.

〈표 1〉 청소년 사목 위기의 원인

환경	측면	원인	
교회 밖	철학·신학적 측면	• 무신론적 문화 • 물질(배급)주의와 소비지상주의 • 반생명적 문화 • 개인(이기)주의	• 신자유주의(경쟁) • 포스트모더니즘 • 정보통신기술의 혁명
	제도·정책적 측면	• 대학입시제도 • 취업난 • 이혼과 가정 해체	• 교육정책 불안 •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열풍
교회 안	프로그램 측면	• 교재의 양과 질 부족 •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 형식적 즉흥적 행사 • 지식전달식 교육	• 다양한 교수방법 부족 • 다양한 수준별 교육 내용 부족 • 청소년사목자를 위한 프로그램 부족
	지원조직 측면	• 청소년 사목의 장기적 전략 부족 • 청소년 중심의 사목 비전 부족 • 사목자의 자질과 헌신 부족 • 사목자의 짧은 임기 • 교회 내 권위주의 분위기	• 교회 내 관심과 여론 형성 부족 • 교사 및 전문가 양성 부족 • 청소년에 대한 학부모 태도의 양면성 •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 부족 • 재정적, 정책적 지원 부족

3. 청소년 사목의 해결 방안 분석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청소년 사목의 위기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열거한 후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이들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들은 청소년 사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조직 차원의 지원에 관한 것들이다.¹⁷⁾

조재연 신부는 청소년 사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 편찬, 다양한 청소년 활동(동아리, 레지오, 스카웃, 교리반, KYCS, 사회봉사단체, 젠 Gen, 성가대, 전례부), 학생 중심의 주일학교 운영, 청소년 또래사목, 청소년 전담 사제, 교사, 전문가 양성, 청소년 지도자 양성, 청소년 행사(신앙대회), 청소년 특성화 본당 지정, 청소년 사목 센터 설립 등을 폭넓게 제시했다.¹⁸⁾

김웅태 신부는 성공적인 청소년 사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17) 고경환 외, 『청소년기 주일 학교 교리 교재 분석』 『활기찬 청소년 사목을 위하여』(서울: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05), 89-124쪽; 김기현, 앞의 논문, 69-73쪽; 이준혜, 『주일학교 대안은 없는가?』 『사목』316(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5), 43-46쪽; 한상화, 『주일학교 현장을 찾아가다』 『사목』316(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5), 27-31쪽; 황종렬, 앞의 글, 46쪽 이하; 한정수, 앞의 논문, 53-61쪽.

18) 조재연, 『청소년 사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언』, 158-176쪽; 조재연, 『청소년 주일학교 사목의 현실과 전망』, 129-136쪽.

여기에는 교리서와 교재 개발, 현장체험 프로그램 확충(현장 봉사, 성지순례, 수도회 체험), 다양한 프로그램(영어교실, 한문교실, 컴퓨터교실, 서예교실, 논술교실), 청소년 행사(체육대회, 신앙대회, 성탄제, 부활제), 청소년 전례(청소년 미사 해설, 독서, 반주, 성가대, 성모의 밤), 청소년 주도적 활동(학생 자치회, 동아리), 퓨전 프로그램(이성과 감성, 신앙과 과학, 남과 여, 고전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융합한 프로그램), 학년을 통합한 동아리 운영,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의 연계, 그리고 시청각 시설(대형스크린, 빔프로젝트, 컴퓨터, 영상물, 정보도서관) 등의 방안들이 포함되었다.¹⁹⁾

조군호 신부에 의하면, 체계적인 사목구조와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청소년 사목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재와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방법을 개발해야 하며, 무엇보다 교회 사목자들의 청소년 사목에 대한 의지와 안정적인 예산의 확충이 필수적이다.²⁰⁾

조한수 관장은 오랜 동안 효율성이 검증된 현재의 주일학교 체제를 유지하되, 신앙공동체 형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당 안에서 주일학교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양한 모델(가정주일학교, 멘토링, 신앙학습지)을 도입하고, 무엇보다 사목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 수준에서 ‘교육사’ 제도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다.²¹⁾

그 밖에도 오늘날의 청소년 사목은 인터넷을 청소년 사목의 도구적 차원이 아닌 삶의 자리로 이해하고, 청소년들과의 공유와 연대를 목적으로 활용해야 하며,²²⁾ 청소년과 교사의 개인적 신앙 체험을 가능케 해야 하며,²³⁾ 부모와 함께 SQ 리더십(the Spiritual Quotient Leadership)을 계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안들도 나왔다.²⁴⁾

교회를 하나의 조직(organization)으로 본다면, 위의 해결 방안들은 조직이론에서 흔히 ‘전략’이라는 용어로 불린다. 전략(strategy)이란 단순한 프로그램, 활동, 조직구성, 요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여기서는 교회)이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계획과 운용을 의미한다.”²⁵⁾ 청소년 사목에서 전략이란 개념은 현재 청소년 사목의 위치, 상태, 변화의 필요, 해결의 방향 등을 판단할 때 도움을 준

19) 김웅태, 앞의 글, 18-19쪽.

20) 조군호, 앞의 글, 108-115쪽.

21) 조한수, 앞의 글, 44-56쪽.

22) 양주열, 『청소년 사목을 위한 사이버 수단의 활용 방안』 『사목연구』15(서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005 겨울), 132-160쪽.

23) 서기원, 『본당에서의 청소년 사목에 대하여 - 약정토론』 『사목연구』15(서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005 겨울), 65-69쪽.

24) 강석준, 『SQ 리더십 교육을 통한 가톨릭 교육 정체성의 재조명과 방안』 『사목연구』15(서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005 겨울), 70-119쪽.

25) 전략(strategy)은 회랍어 통솔능력 혹은 지휘력을 의미하는 *strategia* (*stratos* 군대+*agein* 이끌다)의 합성어로서, 군대를 이끌거나 작전을 수행하는 방법론을 의미하였다: Bob Norton & Ray Irving, *Strategy in a week*, 김보경 역, 『일주일 만에 끝나는 전략』(서울: 이큰, 2002), 13-17쪽.

다.²⁶⁾ 〈표 2〉 〈표 3〉는 청소년 사목의 전략들을 유형화한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 전략과 조직적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청소년 사목의 프로그램 전략

프로그램 전략은 청소년 사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학술 협력, 활동과 행사, 그리고 외부 연계와 협력을 포함한다. 〈표 2〉을 보면, 프로그램 전략의 첫째인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 사목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활동들이다. 여기엔 교리교육, 여름캠프, 피정 및 수련 체험, 현장체험, 인터넷 활용 교육 그리고 기타 교육이 포함된다.

프로그램 전략의 두 번째 영역은 연구 및 학술 협력이다. 이는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사목에 관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 사목에 대한 연구가 양과 질에서 너무도 미약한 우리 교회의 실정을 고려할 때, 이 주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사목 연구소 설립, 외부와 연계한 연구 및 학술 활동, 연구 전문가 양성, 연구-실행-평가의 통합적 체계 구축을 포함한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 및 행사이다. 여기에는 청소년 모임, 동아리 활동, 행사(체육대회, 댄스대회, 환경대회), 봉사활동, 현장체험, 전례 및 교회행사(청소년 미사, 성모의 밤, 성탄제, 부활제)가 있다. 청소년 사목은 이런 활동과 행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동료애와 공동체성을 키울 수 있고, 다른 청소년들과의 유대를 확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외 연계와 협력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사목은 지역, 국가, 세계적인 전망에서 바라보게 된다. 청소년 사목은 교회 뿐 아니라 지역, 국가, 세계의 청소년 관련 단체들과 연계할 수 있다.

효과적인 청소년 사목을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프로그램을 선택하려면 우선 청소년 사목이 목적과 비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각 공동체의 필요와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26) 같은 책, 19-20쪽.

〈표 2〉 프로그램 전략

영역	구성 요소
교육 프로그램	• 교리교육 • 정기적 여름 캠프 • 동아리 형태 교육 • 피정 및 수련, 현장 체험 • 멘토링(성인 mentor 활용) • 신앙 학습지 • 인터넷 활용 교육(성서, 교리) • 영어, 한문, 논술, 컴퓨터, 서예
연구 및 학술 협력	•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사목 연구소 설립 • 연구 전문가 육성 • 정부·지역의 청소년 기관과 공동 연구 및 실행 • 대학의 청소년관련 교육학과 연계 • 외국의 청소년 사목 부서와 연계 • 교회 안팎의 전문가 집단과 연계 • 연구-시행-평가 연계 체계 구축
활동 및 행사	• 교회 안팎의 청소년 모임 및 동아리(댄스, 노래, 그림, 영어) • 교회 안팎의 청소년 관련 행사 • 지역사회의 청소년 단체와 공동 주최 행사 • 청소년 현장체험 및 봉사 활동 • 교회 내 청소년 주도 전례 및 행사(미사, 성모의 밤, 성탄제, 체육대회)
대의 연계와 협력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기관과 협력 • 시/구/동 기관과 협력 • NGO 및 시민단체와 협력 • 일선 제도권 학교와 각종 학원과 협력 • 외국 교구 및 본당과 자매 결연 • 본당 내 선배-후배 관계 형성 • 전(前) 교사 및 청소년 사목자들과 연계

2) 청소년 사목의 조직적 전략

〈표 3〉는 청소년 사목의 조직적 전략을 정리한 것으로, 여기에는 지배구조(governance), 운영(operation), 지원체제(support system), 그리고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²⁷⁾ 조직적 전략은 대개 공식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지만, 때때로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자주 권력구조에 따라 활용되고, 때로는 개인적인 카리스마에 의해, 또 한때는 집단적 형태를 띠고 나타나기도 한다.

27) 이 부분은 Jane Knight,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A Conceptual Framework*, Knight & De Wit,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Asia Pacific Countries* (Amsterdam, the Netherlands: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EAIE), 1997), pp.13-17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표 3〉 청소년 사목의 조직적 전략

영역	구성 요소
지배구조	• 사목에서의 청소년의 가치 천명 • 사목자의 의지와 투신 천명 • 청소년 사목의 목적과 목표 명시 • 청소년 사목이 교구와 본당의 중심사목으로 자리매김.
운영	• 청소년 사목을 본당 사목의 모든 영역과 통합 • 청소년 사목 전담 부서들 신설(교리교육, 상담, 학업 등) • 청소년 사목의 주체들과 공식적·비공식적 상호소통 상시화 • 청소년 사목의 중앙집권과 분권의 조화 • 청소년 특성화 사목(또래사목, 학년통합, 특성화 본당) 운영
지원 체제	• 조직(본당, 교구)차원의 전폭적인 인지 및 지지 확보 • 시설(교리실, 휴게실, 상담실, 활동실, 청소년 사목 센터) 확보 • 안정적 재정 확보 • 충분한 전문 사목자 확보 • 지역 및 정부 차원의 청소년 유관단체와 연계 • 사제-교사-학부모의 협력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체제
인적자원개발	• 청소년 리더 양성 • 청소년 사목 전문가 양성 • 청소년 사목자를 위한 안정적 보상 체계 구축 • 청소년 사목자들을 위한 평생교육 체계 구축 • 청소년 사목 고급 학위 과정 신설(대학원 수준 이상)

조직적 전략은 청소년 사목을 왜 일종의 조직적 ‘과정’이라고 표현했는지를 잘 나타낸다. 조직적 전략은 청소년 사목적 전망이 교회(교구, 본당)의 사목적 계획, 실행, 평가에서, 그리고 교회의 기본적 기능인 복음선교, 전례, 친교, 봉사 안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조직적 전략은 청소년 사목이 교회 구조 안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방지해 준다.

II. 교회의 권위와 청소년 사목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정리한 청소년 사목의 위기와 전략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위기와 해결 방안(전략) 사이에 어떤 일관성 있는 관점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화의 일관성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명백하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청소년 사목에 관한 기존 사고체계와 행동방식에서 떠나서 새로운 사고체계와 행동방식을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소년 사목 안에서 청소년들은 더 이상 대상화되거나 수동적인 존재로 남지 않는다. 새로운 사목적 전략은

청소년들을 사목의 주체이며 능동적인 존재로 여기며, 성인과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로 인정한다. 따라서 오늘날 청소년 사목은 사목의 주변에서 중심부로 자리이동을 해야 하며,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희망’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표 4〉 청소년 사목의 관점 변화

구분	과거	현재
사목 유형	• 교회의 주변 사목	• 교회의 중심 사목
	• 일회적 사목	• 지속적(장기적) 사목
	• 성인 중심 사목	• 청소년 중심 사목
청소년 위치	• 수동적 참여	• 능동적 참여
	• 사목 대상	• 사목 주체
	• 일방적 수용	• 동반적 협력

2003년 서울대교구 시노드 이후 출간된 정진석 추기경의 교서(敎書)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는 청소년 사목의 이런 변화를 잘 요약하고 있다.

“우리 교구는 청소년과 청년 사목을 ‘부수적 사목’에서 **‘중심 사목’**[굵은 글자—저자 강조] 으로, 일회성 사목에서 전문적 사목으로 전환하도록 분명한 사목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5항).

“그들을 위한 사목 규정의 제정으로 **‘일관성 있는’** 청소년·청년 사목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우리 교구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사목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적, 공간적 기반을 구축해 주어야 합니다”(8항).

“기성세대와 청소년이 **‘동반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먼저 일방적이고 지시적인 관계로부터 벗어나 그들과 시각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38항).

“청소년, 청년과의 동반적 관계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줍니다”(39항).

1. 청소년 사목의 패러다임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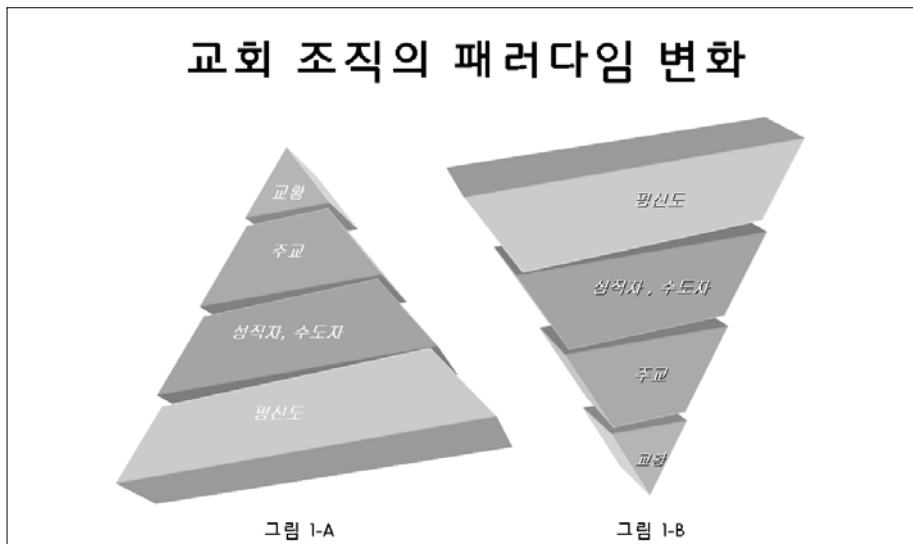
청소년 사목의 개념적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청소년 사목을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바라보도록 만든다. 패러다임이란 삶의 방식을 조율하는 일종의 심리적 유형, 모델, 의식의 지도(mind map)이다.²⁸⁾ 패러다임이 적절할 경우에는 삶을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지만, 패러다임을 불변하거나 고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삶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과 타인, 조직과 세상에 대한 패러다임은 항상 지속적으로 변화,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곧 ‘패러다임 전환’을 뜻한다.²⁹⁾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새로운 패러

28) James C. Hunter, *The Servant: A Simple Story About the True Essence of Leadership*, 김광수 역, 『서번트 리더십』(서울: 시대의 창, 2004), 74쪽.

29) Steven R. Covey,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김경섭·김원석 역, 『성공하는 사람들의

다임은 항상 변화를 강요한다는 점이다.³⁰⁾

교회를 비롯하여 세상의 모든 조직을 구분하는 두 가지 패러다임 유형이 있다. 첫째 패러다임은 관료형 피라미드이다. 이 패러다임은 분업과 전문화, 몰인정성, 계층, 규칙, 규정, 과업지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형 모델’과 유사하다.³¹⁾ 관료형 모델은 위가 뾰족한 삼각형 모양이다 <그림 1의 1-A>. 이를 하향식 패러다임이라고도 한다.



<그림 1> 교회 조직의 패러다임 변화

오늘날 이것은 교회의 모델로서는 신학적 의미를 상실하였지만 오랫동안 교회의 전통적 모형이었다. 피라미드의 제일 위에는 교황과 주교, 다음이 사제 및 수도자, 그리고 제일 아래 부분이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에서 청소년의 위치는 신자 영역에서 ‘성인’ 다음으로 가장 밑바닥에 해당될 것이다. 이 모델은 생산조직의 초기 단계에 효율

7가지 습관』(서울: 김영사, 1994), 41쪽: ‘패러다임 전환’은 토마스 쿤의 대표적인 저서인 패러다임이란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쿤은 과학연구 분야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거의 위대한 발견은 연구자가 기존의 낡은 전통적 사고방식 즉 낡은 패러다임을 파괴함으로써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예를 들면, 천동설이 지배하던 세상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은 갑자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었고, 뉴턴의 물리학이 지배하던 세상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등장하면서 혁명적인 변화가 몰아 닥쳤다. 왕권신수설이 지배하던 군주제도는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렸다.

30) James C. Hunter, 위의 책, 78쪽.

31) Max Weber,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s* (New York: Free Press, 1997); Wayne Hoy & Cecil Miskel,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송화섭 역, 『최신 교육행정의 이론탐색과 실제』(서울: 학문사, 2000), 82-83쪽에서 재인용.

적인 반면에, 성숙한 조직에서는 효율이 급격히 저하시키고 구성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는 단점이 있다.³²⁾

이번에는 피라미드를 뒤집은 역피라미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그림 1-B). 이 피라미드에서 넓은 밑변을 차지하는 신자와 청소년들은 가장 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 아래에 수도자와 사제가 위치하고, 삼각형 뾰족한 끝 쪽에는 주교와 교황이 있다. 세상과 다른 청소년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는 바로 청소년들이다. 청소년은 제일 위에 있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관심을 받고 있다.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은 가장 위에 있는 청소년들의 사정을 살피며, 욕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교회 조직에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은 청소년들과 청소년 사목자들이 자신의 사명과 과업을 완수하도록 봉사한다.

2. 교회의 권위, 권력, 권위주의

청소년 사목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은 교회의 ‘권력’ 혹은 ‘권위’를 반성하게 한다. 효과적인 청소년 사목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며 그들에게 ‘봉사하는’ 교회의 권력에 달려 있다. 성공적인 청소년 사목을 위한 교회의 권위는 어떤 것일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교회의 권위, 권력 그리고 권위주의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1) 교회의 권위

권위란 ‘개인의 영향력에 의해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한다.³³⁾ 이 정의의 ‘영향력’과 ‘자발적’이라는 단어는 권위를 부정적 의미의 권력과 구분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권위는 본질상 처벌과 보상을 이용한 ‘강제’(coercion)를 포함하지 않는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요청을 하면,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기꺼이 그 요청을 따르는 것이다.

권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지식, 경험, 전문성, 훈련으로부터 오는 권위와 공식적 지위, 직무로부터 오는 권위, 그리고 사랑에 입각한 봉사와 헌신의 권위이다.³⁴⁾ 첫째 권위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 권위’(functional authority)라고 부른다. 기능적 권위의 활용은 사람들에게 대체로 커다란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다.

둘째 권위는 공식 조직의 위계 안에 사용되는 권위이다. 지시에 복종하게 만든 영향력

32) Peter G. Northouse,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e*, 김남현·김정원 역, 『리더십: 이론, 응용, 비판, 측정, 사례』(서울: 경문사, 2001), 91-92쪽; James C. Hunter, 앞의 책, 84-85쪽.

33) James C. Hunter, 앞의 책, 47쪽.

34) Thomas Gordon, *Leader Effectiveness Training L.E.T: The Proven People Skills for Today's Leaders Tomorrow*, 장승현 역, 『리더 역할 훈련』(서울: 양철북, 2001), 269-274쪽; Hoy & Miskel, 앞의 책, 233-234쪽 참조.

은 조직 내의 직함과 역할 (예, 사장과 비서, 기장과 부기장)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이를 ‘합법적 권위’(legitimate authority) 혹은 ‘공식적 권위’(formal authority)라고 부른다. 이 권위 역시 사람들에게 별다른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세 번째는 봉사하는 권위이다. 교회의 사목권은 봉사하는 권위이다. ministry(사목)은 ‘minor’ 라는 ‘작은’ ‘보잘 것 없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에서 파생된 것이다.³⁵⁾ 청소년 사목(youth ministry)에 있어, 교회에는 봉사하는 권위만이 있다. 교회의 권위는 청소년들에게 헌신하는 교회의 봉사와 희생에 바탕을 둔다. 그렇다면 교회의 봉사와 희생은 무엇에 근거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랑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을 말하는 명사가 아니라 행동을 의미하는 동사이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원수에 대해 사랑의 감정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선택과 행동에 따르는 관대함을 가지라는 뜻이다. 따라서 사랑은 의지에서 비롯한다.³⁶⁾ 의지(will)란 지향(intentions)과 행동(actions)의 결합된 상태를 말한다.³⁷⁾

이것을 청소년 사목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청소년 사목에 대한 교회의 권위는 청소년 사목에 대한 교회의 ‘의지’(will)에서 비롯되며, 이 의지는 교회의 청소년을 사목의 중심으로 두려는 의도 혹은 지향(intention)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동(action)의 결합이다. 교회가 청소년 사목에 대한 굳은 의지가 있을 때, 교회는 청소년들이 갈망하는 것(욕구, needs)을 규명하고 충족시켜주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그들을 자녀들처럼 ‘사랑’(love)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봉사와 희생’을 본질적으로 필요로 한다. 교회는 끊임없는 봉사와 희생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형성하게 된다. 이 영향력은 바로 권위이다. 이 설명을 다음과 같은 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³⁸⁾〈그림 2〉

2) 교회의 권력

권위의 유형 중에서 ‘권력 권위’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권력’이라고 부른다. 권력의 고전적인 정의는 막스 베버(M. Weber)의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의 지위 또는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도록 강제 또는 지배하는 능력’³⁹⁾이다. 그래서 권력을 강제적인 권위라고도 한다. 대체로 권력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반응과 결과를 일으킨다.

권력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그 사람이 권력자에게 자신의 욕구를 충족을 위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 둘째, 사

35) 서공석, 『교회 권위주의 발생처』, 서공석, 정양모 편, 『한국 가톨릭교회 이대로 좋은가?: 그리스도론과 교회의 권위주의』(예관: 분도출판사, 1998), 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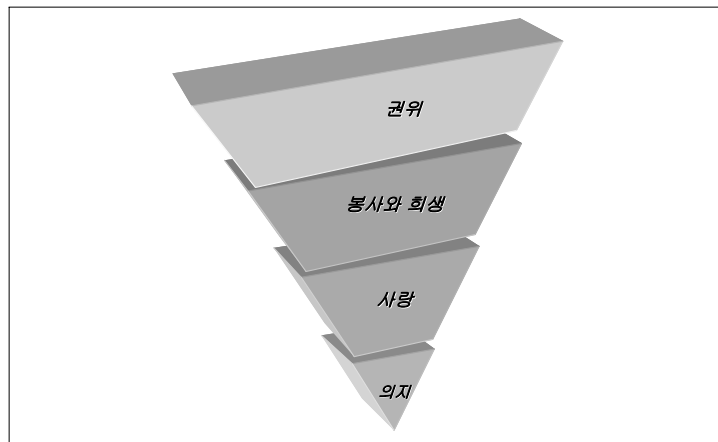
36) James C. Hunter, 앞의 책, 147쪽.

37) 위의 책, 126-127쪽.

38) 위의 책, 111-125쪽.

39) 위의 책, 47쪽.

람들이 권력자에 대해 어느 정도 공포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물론 공포심의 원인은 권력자가 내리는 처벌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효과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권력이 필요하다고 믿는 반면, 누구도 집단 구성원들이 의존적이고 두려움에 젖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⁴⁰⁾



〈그림 2〉 교회의 권위 모델

권력의 사용은 조직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결과는 상향적 의사소통의 감소이다. 권력을 자주 사용하는 보스는 조직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가장 늦게 보고를 받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듣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권력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는 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아부와 아침의 문화가 형성된다. 진정 중요한 것이 아니 것으로 권력자의 호의를 얻으려는 분위기가 조직 안에 형성되기 때문이다. 셋째, 파괴적인 경쟁과 대립이 생긴다. 고자질, 험담, 험잡, 사건 은폐, 쑥덕공론, 중상모략이 난무한다. 넷째, 복종과 순응이다. 수동적으로 굴복하고 복지부동하는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 조직 안에는 시키는 것만 하고 모든 것을 지시받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 마지막으로, 도전과 반항이다. 권력자를 무조건 반대하고 의도적으로 권력자의 지시가 달성되지 않도록 방해한다.⁴¹⁾ 그래서 권력의 문제를 훌륭하게 분석한 리처드 포스터(Richard Foster)는 이런 권력을 ‘파괴적인 권력’이라고 말한다. “파괴시키는 권력은 지배하고 한다. 따라서 전적인 통치를 요구한다. 그것은 관계를 파괴하고, 신뢰를 파괴하고, 통전성을 파괴한다.”⁴²⁾

교회는 조직, 더 정확히 말하면 종교적 조직이며, 조직의 본질상 권력 구조이다. 교회가

40) Thomas Gordon, 앞의 책, 252-253쪽.

41) 위의 책, 251-264쪽.

42) Richard Foster, *Monry, Sex, and Power: The Challenge of the Disciplined Life*, 김영호 역, 『돈 섹스 권력』(서울: 두란노, 2004), 195쪽 이하.

지니는 권력은 종교권력(religious power)이다.⁴³⁾ 종교권력은 종교적 재화(religious goods) 혹은 구원의 수단⁴⁴⁾을 생산·재생산하고 축적하고 분배 교환하는 능력에 의존한다.⁴⁵⁾ 종교가 종교권력을 형성하는 다섯 단계는 (1) 종교적 작업을 전문화(specialization of religious work)하여, 종교적 기능인(religious functionaries)을 형성하고, (2) 종교적 기능인의 존재와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종교적 생산수단(성스러운 장소들, 헌신대상, 예배양식, 종교적 시간)을 박탈, 몰수하여 일반인들을 수동적·부차적·침묵적인 존재로 만들어, (3) 소수의 성직 집단과 다수의 평신도(일반인) 집단을 형성할 뿐 아니라, (4) 성직 집단과 평신도 집단 내부에서 역시 직무의 분화와 종속관계를 형성하고, (5) 상이한 종교적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종교 내에 갈등과 상호 거래(transaction)가 상존하면서, 늘 예언자운동의 출현에 노출되어 교회형(church-type) 종교는 ‘불안정한 균형’의 상태에 있게 된다.⁴⁶⁾

위와 같은 종교적 엘리트와 대중의 분할은 결국 일종의 상호의존과 타협, 그리고 교환의 관계로 나가게 된다. 더욱이 현대의 종교다원주의 상황은 종교가 더 이상 ‘숙명’이 아니라 ‘선택’의 대상이 되어, 평신도의 지위의 점점 높게 인정하게 된다. 오늘날 평신도는 종교(교회)에 대해 소비자의 지위(consumer status)를 갖게 되고, 교회와 성직자는 종교상품의 생산자이자 판매자로서 끊임없이 종교시장에 나가 구매자를 만족시켜야 한다.⁴⁷⁾ 이런 시장의 법칙은 교회로 하여금, 종교적 혁신과 상품의 개량을 강요하고, 평신도의 지위를 제고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성장주의와 물량주의의 가치관을 확산시키기도 한다.⁴⁸⁾

3) 교회의 권위주의

권력의 부정적인 측면이 개인이나 조직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속에 고착된 형태를 일컬어 권위주의라고 한다. 권위주의는 교회 안에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사람들은 이것을 청산할 대상으로 인식한다.⁴⁹⁾ 서공석 신부는 가톨릭교회의 권위주의 발생의 근원을 네 가지 착각에서 비롯한 것으로 본다. 첫째, 교회의 구원의 초자연적 지식을 전달하

43) ‘종교권력’ 부분은 강인철, 『종교권력과 한국 천주교회』(기독교사교수협의회 연차대회, 2003.2.15, 이화여대)의 관점을 기본적으로 수용하였다.

44) 구원의 수단은 질병의 치유와 육체적 건강, 정신적 안정, 취업과 승진, 진학, 출산, 사업의 번창, 풍작과 풍여, 재해 방지와 퇴치 등 현세 구복적인 것부터, 미래에 대한 지식, 초능력의 획득, 신적인 힘과의 일치, 사악한 힘의 제거 혹은 억제, 죽은 자의 구원, 내세의 행복 등 우주적·초월적·내세적인 것을 포함한다: 강인철, 위의 글, 각주(1) 참조.

45) 강인철, 같은 글, 3쪽. 강인철은 부르디외(Pierre, Bourdieu)와 막스 베버(Max Weber)의 이론을 바탕으로 종교권력을 분석한 오토 마두로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Otto Maduro & Robert R. Barr, *Religion and Social Conflicts*, 강인철 역, 『사회적 갈등과 종교』(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46) Otto Maduro & Robert R. Barr, 같은 책, 159-187쪽; 강인철, 위의 글, 3-5쪽에서 재인용.

47) 강인철, 위의 글, 6쪽.

48) 노치준, 『한국의 교회조직』(서울: 민영사, 1995), 198쪽 참조; 강인철, 위의 글, 6쪽에서 재인용.

49) 민경석, 『미주 교포사회 내의 권위주의와 가톨릭의 권위주의적 풍토』, 서공석·정양모 편, 앞의 책, 98쪽; 서공석, 『교회 권위주의의 발생처』, 서공석, 정양모 편, 같은 책, 52쪽.

는 성직자가 지식의 수혜자보다 우월하다는 ‘형이상학적’ 착각; 둘째, 구원의 언어를 보존하는 교회와 구원 자체를 동일시하는 착각; 셋째, 교회의 교도권을 봉사를 위한 것이 아닌 권력의 행사로 보는 착각; 넷째, 서품을 통한 성직의 신분을 권위와 실효성으로 동일하게 보는 착각 등이다.⁵⁰⁾

교회의 권위주의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에 관한 몇 예를 들어 보자. 첫 번째 결과는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감소이다. 1998년에 가톨릭신문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교회의와 자기 교구장의 사목교서를 어느 정도라도 읽어본 신자는 전체의 20.6%에 지나지 않았고, 교구장의 사목 방침에 대해 어느 정도라도 알고 있는 신자는 전체의 34.9%에 불과했다. 또한 당시에 오랫동안 교구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2000년대 복음화운동’이나 ‘대회년 준비’ 등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거나 어느 정도 아는 신자 역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⁵¹⁾ 권위주의는 교회 상층부의 의지가 신자 대중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의사소통 부재를 초래한다.

또한 교회의 권위주의는 특히 여성들로 하여금 자기 존중감을 갖지 못하게 하고, 좌절하게 한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여성들은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가부장적인 교회 안에서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면서 행사 때 굿은 일, 잔손질과 허드렛일을 도맡아 한다.⁵²⁾

교회의 권위주의는 역시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꽃피게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청소년들에게 교회는 권위적으로 비춰지고 있다. 2002년 6월 ‘청소년 시노드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대교구 청소년 대표 350여 명은 그들이 다가서기 어려운 교회의 권위주의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그들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의 용어와 내용,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성서 해설, 그리고 좀처럼 어른들과 함께 할 자리가 없는 교회생활을 통해 교회를 ‘권위주의’를 체험하고 있었다. 그들은 교회의 어른들이 자기들을 ‘애들’로 부르고 또 그렇게 여기며, 서로 양해가 필요한 일에서 나이와 지위로써 억누른다고 보았으며, 자기들을 교회의 구성원, 심지어 신앙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어른들만이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⁵³⁾

이처럼 만일 교회가 권위주의에 젖는다면, 교회는 그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권위주의는 또한 교회 책임자가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을 다루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게 만든다. 그리고 결국 권위주의는 구성원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을 점차 상실하게 만든다.⁵⁴⁾

50) 서공석, 위의 글, 52-56쪽.

51) 강인철·박문수·박영대, 『가톨릭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서울: 가톨릭신문사, 2000), 122-123쪽; 강인철, 앞의 글, 18쪽에서 재인용.

52) 이용훈, 『한국 교회, 여성 신자의 신원과 역할』 『사목』 217(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2), 77쪽.

53) 천주교 서울대교구 본당 중·고등학생 사목부, 『본당 청소년 공청회 자료집』(서울: 천주교서울대교구, 2002), 124-127쪽.

그렇다면 교회가 자신의 영향력을 살리고 교회 전체를 활력 있도록 하는 길은 무엇일까? 나아가 교회 안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청소년 사목에 속박이 아닌 자유, 죽음이 아닌 생명, 그리고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길은 무엇일까? 간단히 답을 하자면, 교회가 권위주의와 부정적 권력을 벗어버리고, 권위와 봉사하는 권력을 사용할 때 교회공동체와 청소년 사목을 되살릴 수 있다. 권위는 교회의 본질이다. 그러나 권위는 강제력이 아니라 영향력이다. 권위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삶에서 나온다. 봉사하는 권위는 참다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3. 청소년 사목을 위한 교회의 권위

봉사하는 교회의 권위가 청소년 사목을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와 희생 그리고 사랑의 영역은 어디일까? 교회의 권위는 청소년 사목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야 할까? 한마디로, 청소년 사목을 위해 교회 권위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여기에는 자연의 법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꽃나무를 키운다고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양지바른 땅을 갈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준 다음, 해충을 잡아주고 주기적으로 잡초를 뽑아주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꽃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태아가 9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궁 내의 건강한 환경, 아니 거의 완벽한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태아는 아이로서 건강하게 성장한다.⁵⁴⁾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교회는 청소년 사목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청소년 사목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 인간상, 내용, 원리 그리고 발달 단계를 존중하면서, 그것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물론 교회의 권위의 올바른 사용이 뒤따라야 한다.

청소년 사목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1) 청소년이 현대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도록 힘을 실어주고, (2) 청소년이 가톨릭 신앙공동체에서 소중한 존재로서 책임감 있게 참여케 하고, (3) 청소년의 인간적·영성적으로 전인적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⁵⁶⁾ 이 목적을 위해 청소년 사목은 청소년들에게 제자 정신(discipleship)을 가르치고 종교적 교육(religious education)을 하며, 영적 양성(faith formation)을 실시한다.⁵⁷⁾

이러한 청소년 사목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인간 본질에 관한 이해에서 비롯한다. 인간은 육체(body) - 혼(soul) - 영(spirit)으로 되어 있다.⁵⁸⁾ 육체는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덕성을 추

54) Thomas Gordon, 앞의 책, 264-269쪽.

55) James C. Hunter, 앞의 책, 190-194쪽 참조.

56)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USCCB), op.cit., pp.9-17.

57) 조재연, 『청소년 사목에 대한 교회의 시선』, 110쪽.

58) 신약성경 중 테살로니카 1서 5장 23절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

구하고, 혼은 교리교육과 기타 교육을 통해 지성과 감성을 키우고, 영은 영적 양성과 영적 프로그램을 통해 영성을 함양한다.⁵⁹⁾ 인간의 본질과 기능, 그리고 청소년 사목의 내용은 청소년 사목의 전체성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표 5>과 같다.

<표 5> 인간의 본질과 기능 & 청소년 사목의 내용

인간 본질	기능	청소년 사목 내용
육체(body)	덕성	사목적 활동 및 프로그램
혼(soul)	지성, 의지, 감성	교리교육 및 기타 교육
영(spirit)	영성	영적 양성 및 프로그램

청소년 사목의 기본 원리는 청소년을 향한(to youth), 청소년에 의한(by youth), 청소년을 위한(for youth), 청소년과 함께(with youth)로 구성된다. 이 원리가 구체적으로 펼쳐질 때는 우선순위와 단계가 존재한다.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청소년을 위한’(for) 사목이다. 이는 조직과 예산, 양성 등을 의미한다. 청소년 사목의 초기단계에서는 청소년들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른들이 먼저 해주어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 청소년에 의한(by) 주체적인 사목이 이루어진다. 그 뒤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with) 활동을 한다. 그 때 비로소 청소년을 향한(to) 청소년 사목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⁶⁰⁾

이제 교회는 자신의 권위(창조적 권위)를 활용하여 위에서 정리한 청소년 사목의 목적과 내용, 원리와 단계를 통합된 방식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미국 주교회의의 청소년 사목에 관한 문헌 『Renewing the Vision』(1997)은 교회가 통합시켜야 할 청소년 사목의 8개의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이 요소들은 교회가 청소년 사목을 위해 수행해야 할 직무와 연결된다.⁶¹⁾

- ① 옹호(advocacy): 청소년 사목은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말을 듣고 지지해 주며, 합당한 권위와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청소년들을 대변하는 것이다.
- ② 교리교육(catechesis): 청소년 사목은 청소년들에게 성서와 가톨릭 신앙을 배우고 탐구하게 하는 것이다.
- ③ 공동체 생활(community life): 청소년 사목은 청소년들에게 가정과 본당 안에서 포용, 이해, 지지,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체험하도록 한다.
- ④ 복음화(evangelization): 청소년 사목은 복음을 선포하고,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 없이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강석준, 앞의 글, 86-88쪽 참조.

59) “혼의 기능은 세 가지로 지능, 의지, 감성이다. 영의 기능은 양심, 통교, 직관이다.” 강석준, 위의 글, 86-88쪽 참조.

60) 조재연, 『청소년 사목에 대한 교회의 시선』, 111쪽.

61) 위의 글, 112쪽.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 ⑤ 정의와 봉사(justice and service): 청소년 사목은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와 성서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정의와 봉사를 생활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⑥ 리더십 개발(leadership development): 청소년 사목은 청소년이 지니는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재능과 자질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⑦ 사목적 배려(pastoral care): 청소년 사목은 청소년들의 인간적·영적 욕구를 파악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가능한 자원과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다.
- ⑧ 기도와 전례(prayer and worship): 청소년 사목은 청소년들이 효과적인 기도와 전례를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를 경축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 4〉 청소년 사목에 대한 교회 권위의 직무 모델



결론: 청소년 사목의 학문적 체계와 교회 권위의 진정한 봉사

이 글은 청소년 사목의 이론 개발을 꿈꾸며,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청소년 사목의 중요한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분석적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또한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진정한 청소년 사목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한 작업이다. 이 글을 위해 선행연구들을 읽어가면서 이런 작업의 필요성을 느꼈다. 많은 선행연구들 안에서 거둬진 논의와 토론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사목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합의는 물론이

고 청소년 사목의 개념조차 정리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이는 부분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이 분야의 학문적 나이가 어린 탓도 있겠고 또 이론 정리보다 사목적 실천이 더 급하고 중요하였던 탓도 있겠으나, 앞으로 청소년 사목이 더욱 발전하려면 신학, 철학, 교육학, 심리학, 행정학, 경영학의 중요한 이론에 근거한 학문적 체계를 구축하는데 더욱 힘을 써야한다.

학문은 인간의 순수한 지적 호기심의 표현이자 결과인 ‘서술적인’ 학문과 인간의 생물학적 욕구의 표출이자 결과인 ‘실천적인’ 학문으로 구별된다. 이 둘을 흔히 이론적 학문과 도구적 학문으로 부르기도 한다. 우선 이론적 학문은 일종의 현상서술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 학문은 사물과 사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원리나 법칙을 밝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뉴턴의 이론, 다윈의 이론, 마르크스의 유물론 등 이론은 어떤 사실적 재현이 아니라 특정한 원리를 밝혀 준다. 사실 재현의 불가능은 이론이 지닌 특성인 동시에 한계이다. 반면에, 도구적 학문은 그 학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한 학문이다. 그러나 도구적 학문이라고 해서 꼭 공학이나 예능, 혹은 사회과학 같은 실용학문으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인문학이나 순수 자연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정서, 상상, 사유 같은 정신성과 초월의식 같은 영성을 고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사목이 이론적 측면과 도구적 측면에서 보다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먼저 청소년 사목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이며,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을 교육학적인 용어로 사용하여 표현한다면, 교육(청소년 사목) 개념 및 정의, 교육 목적, 교육과정, 교육 방법, 학교(여기서는 본당, 교구 등 조직)의 역할, 교사의 역할 등을 말한다. 모든 문제가 그렇듯, 청소년 사목의 문제에 대해 어떤 유일한 정답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원리와 원칙이 항상 존재한다. 원리와 원칙은 실천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실천을 더욱 효과적이게 만들 수 있다.

교회는 권력을 지니고 그것을 권위로서 행사한다. 교회의 권위는 강제가 아닌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만들 때 의미를 지닌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권위는 긍정적인 의미의 권력, 즉 봉사와 희생에 바탕을 둔 권력이다. 청소년 사목이 얼마나 잘 성장하느냐는 교회의 권위가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성장시키려는 지향을 품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교회의 진정한 권위는 청소년 사목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교회의 권위는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전인적인 성장을 하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랑을 받으며 나아가 세상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목을 실현해 나간다. 청소년 사목을 위한 교회의 노력은 교회의 권위가 분명한 청소년 사목의 비전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며, 긍정적으로 권력을 활용할 때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석준, 「SQ 리더십 교육을 통한 가톨릭 교육 정체성의 재조명과 방안」 『사목연구』15(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겨울).
- 강영복, 「현대 사회의 청년사목의 방향에 대한 조사연구」(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강인철, 「종교권력과 한국 천주교회」(기독교자교수협의회 연차대회, 2003.2.15. 이화여대).
- 강인철, 박문수, 박영대, 『가톨릭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 서울: 가톨릭신문사, 2000.
- 고경환 외, 「청소년기 주일 학교 교리 교재 분석」,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편, 『활기찬 청소년 사목을 위하여—진단과 방안 모색』, 서울: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05.
- 김기현, 「청소년 사목의 방향에 대한 제언」(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웅태, 「청소년 사목 이대로 좋은가」 『사목연구』15(서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005 겨울).
- 노치준, 『한국의 교회조직』, 서울: 민영사, 1995.
- 라틴아메리카 주교단협의회 사무국, 김수복·성염 역, 『메텔린 문헌: 제2차 라틴아메리카 주교단 총회 최종 결의』, 왜관: 분도출판사, 1989.
- 민경석, 「미주 교포사회 내의 권위주의와 가톨릭의 권위주의적 풍토」, 서공석·정양모 편, 『한국 가톨릭교회 이대로 좋은가?: 그리스도론과 교회의 권위주의』, 왜관: 분도출판사, 1998.
- 바오로 6세, 『현대의 복음선교』,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7.
- 박문수, 『청소년들의 신앙의식에 비추어 본 한국 천주교회의 미래』, 서울: 우리신학연구소, 2001.
- 서공석, 「교회 권위주의 발생처」, 서공석·정양모 편, 『한국 가톨릭교회 이대로 좋은가?: 그리스도론과 교회의 권위주의』, 왜관: 분도출판사, 1998.
- 서기원, 「본당에서의 청소년 사목에 대하여—약정토론」 『사목연구』15(서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005 겨울).
- 양주열, 「청소년 사목을 위한 사이버 수단의 활용 방안」 『사목연구』15(서울: 사목연구소, 2005 겨울).
- 오상철, 「가톨릭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갈등에 대한 연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윤일선, 「청소년 사목 토착화 연구를 위한 현실인식」 『한국그리스도사상』10(서울: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02).
- 이금재, 「청소년기 신앙성숙을 위한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리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미영, 「각 교구 청소년 관련 조사에 나타난 청소년 사목의 모습」, 우리신학연구소 편, 『청소년사목워크숍 자료집』, 서울: 우리신학연구소, 2004.
- 이용훈, 「한국 교회, 여성 신자의 신원과 역할」 『사목』217(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2).
- 이준해, 「주일학교 대안은 없는가?」 『사목』316(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5).
- 임병헌, 「사목자의 상주의무에 대한 소견」 『사목연구』2(서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1995.12).
- 제2차 바티칸공의회,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제2차 바티칸공의회 편, 『제2차 바티칸공의

- 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제2차 바티칸공의회. 「선교교령」. 제2차 바티칸공의회 편. 『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조군호. 「청소년 사목 도착화 연구를 위한 현실인식」 『한국그리스도사상』10 (서울: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02).
- 조재연. 「청소년 사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또래사목을 통한 청소년 사도 양성을 중심으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조재연. 「청소년 사목에 대한 교회의 시선」 『사목』(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8).
- 조재연. 「청소년 사목자 양성에 관한 고찰」 『사목』(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7).
- 조재연. 「청소년은 교회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사목』(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5).
- 조한수. 「본당에서의 청소년 사목」 『사목연구』15(서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005 겨울).
- 차동엽. 「21세기 종교환경과 복음적 대안」.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편. 『성서사도직회보』. 제 17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 천주교 서울대교구 본당 중·고등학생 사목부. 『본당 청소년 공청회 자료집』. 서울: 천주교 서울대교구. 2002.
- 천주교 서울대교구.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 서울: 천주교서울대교구. 2003.
- 한상화. 「주일학교 현장을 찾아가다」 『사목』316(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5).
- 현정수. 「새로운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사목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황종렬. 「한국 교회 청소년 복음화의 어제와 오늘: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와 교구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편. 『활기찬 청소년 사목을 위하여』. 서울: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05.
- Bolman, Lee G., & Deal, Terrence E. *Modern Approaches to Understanding and Managing Organization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84.
- Covey, Steven R.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김경섭, 김원석 역.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서울: 김영사. 1994.
- Gorden, Thomas. *Leader Effectiveness Training L.E.T: The Proven People Skills for Today's Leaders Tomorrow*. 장승현 역. 『리더 역할 훈련』. 서울: 양철북. 2001.
- Hoy, Wayne & Miskel, Cecil,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송화섭 역. 『최신 교육행정의 이론탐색과 실제』. 서울: 학문사. 2000.
- Hunter, James C. *The Servant: A Simple Story About the True Essence of Leadership*, 김광수 역. 『서번트 리더십』. 서울: 시대의 창. 2004.
- Knight, Jan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A Conceptual Framework, Jane Knight & De Wit.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Asia Pacific Countries*. Amsterdam, Netherlands: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EAIE), 1997.
- Maduro, Otto & Barr, Robert R. *Religion and Social Conflicts*. 강인철 역. 『사회적 갈등과 종교』.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 Northouse, Peter G.,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e*. 김남현·김정원 역. 『리더십: 이론,

- 응용, 비판, 측정, 사례』. 서울: 경문사. 2001.
- Norton, Bob & Irving Ray, *Strategy in a week*. 김보경 역. 『일주일 만에 끝나는 전략』. 서울: 이큰. 2002.
-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USCCB). *Renewing the vision: A framework for Catholic Youth Ministry*. Washington, D.C.: Author. 1997.
- Warren, Michael. *Youth and the future of the church: Ministry with youth and young adults*.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82.
- Weber, Max.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s*. New York: Free Press. 1997.

원고접수: 2009년 10월 1일 1차심사: 11월 1일 게재승인일: 11월 10일

연구자 소개: 최준규

- ① 전공: 종교학, 교육학 / 소속: 가톨릭대학교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가톨릭교육, 대학행정, 국제교육.
 - ③ 주요논저: 〈가톨릭학교교사의 영성〉, 〈가톨릭대학의 가톨릭 정체성〉, 〈대학의 국제화전략〉, 〈가톨릭의 사제양성 원리와 실제〉, 〈고등교육 국제화의 개념과 동기에 관한 비교연구〉
 - ④ E-mail: runnerchoi@catholic.ac.kr
-

Abstract

**The Youth Ministry and the Church Authority in the
Catholic Church**

Choi, Jungui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studi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youth ministry and the Church authority in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For such a main purpose of the study, it had two sub-purposes to pursue further. First, it figured out its definition, reasons for crises, and strategies for the youth ministry of the Catholic Church, based upon critical review on the previous studies relevant to the subject. Second, it defined the concepts and roles of ‘true’ church authority that vitalize youth ministry by utilizing critical perspectives of religious sociology.

From the result of the study, it reached to the more inclusive definition of the youth ministry like as, “Youth ministry is a process that collaborates the perspective of ‘youth’ into the Church’s basic functions, such as evangelization, liturgy, communion, and service.” Then, it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organizational strategies as well as of program strategies for successful youth ministry. Finally, it stressed that ‘true’ church authority should equip with the ‘service’ perspective enough to establish a clear vision statement, efficient organization, and positive utilization of its power for fruitful youth ministry.

Key words: Catholic youth education, youth ministry, church authority, power paradigm.